

불교 기초교리 강좌

4강

모든 존재의 변하지 않는 속성

2014/ 10/ 26

오레곤주 포틀랜드 보광사



네가지의 성스러운 가르침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

(<http://prezi.com/l-eg0nahi-yn/presentation/>)



중도 - 어중간하고 애매모호한 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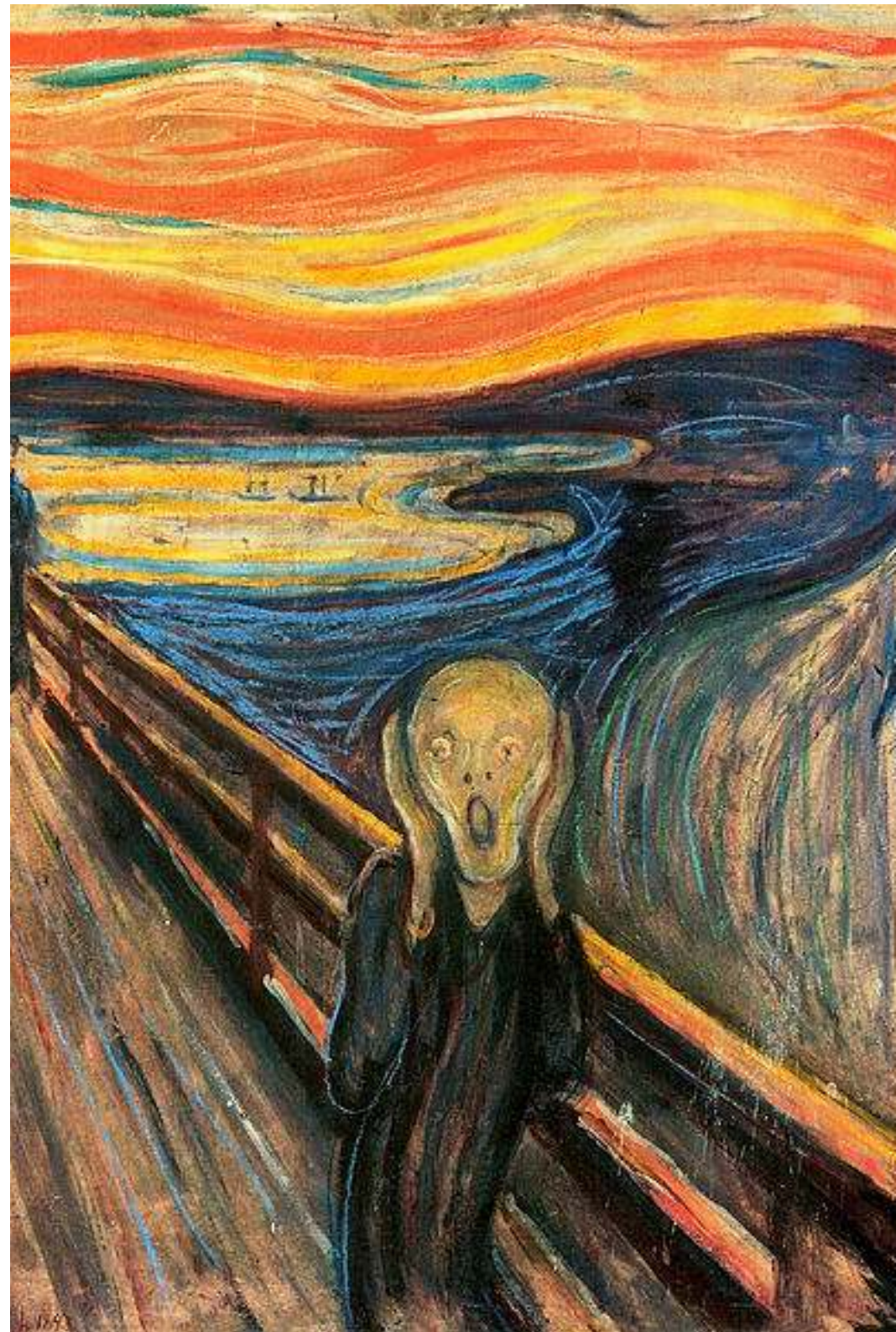
-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여래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팔정도(八正道)로 바른 견해[正見], 바른 사유[正思惟], 바른 말[正語], 바른 행동[正業], 바른 생계[正命], 바른 정진[正精進], 바른 알아차림[正念], 바른 집중[正定]이다.” 비구들이여, 여래는 참으로 이 중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을 얻었다.
- - 초전법륜경 -

리스 데이비스 교수

- 사물이건 사람이건 한 개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변과 별개로 불거지게 되었다는 뜻이며, 일단 주변으로부터 튕겨나면, 불안정하고 일시적이어서, 반드시 사라져가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천신들의 경우엔 수십만년을 살수도 있으나 어떤 곤충의 경우엔 단지 수시간을 그리고 어떤 화학 물질의 경우엔 단지 수초간밖에 지속 못한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이건 시작이 있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마지막이 시작되는 것이다.

불만스러움 - 두카 (고)

-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여. 육신이 영원한가, 아니면 항상하지 않은 것인가?
- 세존이시여, 그것은 항상하지 않습니다
- 그러면 무상한 것, 그것은 만족스러운가? 만족스럽지 못한가?
-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프로이트 - 쾌락의 원리를 넘어서

- 정신 분석학적 견해로는 우리는 정신병적 사건이 생기는 경로가 쾌락의 원리에 의해 자동적으로 통제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건들의 경로는 반드시 불유쾌한 긴장에 의해 발단이 되며, 최종적 결과는 그 긴장의 완화, 즉 불쾌의 회피 내지 쾌락을 향하는 쪽으로 선택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내색조차 할 수
없던 나

김진호 - 가족사진

<http://youtu.be/cS-liArGmcU>

중부 -44경

- 즐거운 느낌은 지속할 동안은 달고, 변할 때는 쓰다
- 괴로운 느낌은 지속할 동안은 쓰고, 변할 때는 달다
-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지혜가 있을 때는 달고, 지혜가 없을 때는 쓰다

날마다 좋은날 - 법정스님 (서 있는 사람들)

-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또한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고스란히 이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이란 다행이도 그 자리에 가만히 놓여 있는 가구가 아니며, 앗은 자리에서만 댄돌도록 만들어진 시계바늘도 아니다. 끝없이 변화하면서 생성되는 것이 생명 현상이라면, 개인의 의지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